



장 옥 주

## 내일의 국가 발전은 영유아 때부터의 건강관리가 기초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중심으로

### 1. 서론

자라나는 어린이란 어느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지식과 계급, 지위와 명예, 지역사회의 개발수준을 초월한 귀중한 보배요 자산으로 내일의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 자산이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은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어린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양육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고 그 나름의 특이성을 지닌 개성있는 인격체로 성장, 발육 과정중이라는 육체적이고도 생리적인 특이점을 지니고 있어 그 나름의 보건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자보건법을 기반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의 보건은 모성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유아 보건이란 모성관리를 통해 태아가 건강관리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어린이 평생의 건강자질을 만드는 때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모성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모자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관리 모자보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모자보건에 대한 자비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리적으로 보건,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 가

운데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유배우 가임여성과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이다. 이곳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영유아 보건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신생아기(생후 4주이내), 영아기(생후 1년이내), 유아기(만2~5세) 및 학령기(만6~14세)로 구분하나 이는 다만 각기 다른 특이성에 준한 구분일 뿐 시기적인 이행에 있어 뚜렷한 것은 아니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 보건이란 영아사망의 3대 원인인 미숙아, 선천성 기형 및 출생시 손상을 예방하고 전염병 예방을 통한 영아사망의 예방, 심신 이상 및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질병예방 목적의 예방접종 및 육아상담을 통한 영양지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영아보건과 지역사회나 집단생활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유아기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신체적 발육의 지체, 단계적 격차의 시정, 정신, 정서 및 사회성의 건전한 발달, 생활습관의 자립, 추가 예방접종, 사고방지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의 영유아 보건관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모자보건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담당하는 내용은 크게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성장발육 측정을 통한 건강관찰과 예방접종 관리로 나누어 진다.

특히 보건소가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이들 중 생후 6개월 또는 1년 6개월에 달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진단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 진료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받게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관찰은 신체발육 측정 이외에도 심신장애아 조기 진단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 건강상담은 원만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겠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며 법정 전염병의 예방접종은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결핵 예방약(BCG),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DPT), 소아마비(Polio), 일본뇌염 및 간염의 예방접종을 보급, 권장하고 있다.

### 3. 영유아 보건에 있어서의 심신장애아 발생 예방사업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건 관리는 주로 영유아의 질병 및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케 하며 생명을 보전하며 영유아의 사망율을 저하시키기 위한 영유아 보건관리와 성장과 발육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과 평가, 영양공급 및 이유성공, 예방접종 및 사고방지, 치아관리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영유아 보건관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천 및 후천성 불구아, 기형아와 정신박약 등에 대한 예방대책, 조기진단 및 치료, 교정 및 재활,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특수아 보건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와 지도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첫단계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란 신생아기(생후 3~7일)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치료함으로써 정신박약을 예방하여 정상인으로 자라게 하는 심신 장애아 발생 예방사업의 하나이다.

아직은 이러한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여 일반적으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앞으로는 모든 신생아가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선 내년부터 선천성 대상이상 집단검사에 대한 홍보 전단을 제작 보급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또한 검사비 부담능력이 없는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4. 결론

내일의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는 영유아에 대한 보건관리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영유아 관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아이를 잉태한 부모에게 있고 이차적으로 다음 세대의 보호 육성이라는 견지에서 국가와 사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보건사회부 보건국 가족보건과 모자보건 계장〉